

# 시로 읽는 부처님 말씀...빠알리어 공부까지

(詩)



**담마빠다 - 빠알리어 문법과 함께 읽는 법구경**  
김서리 역주  
소명출판 펴냄  
3만원

“비록 수많은 경전을 읊는다 할지라도 / 게을러서 그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 소치는 자가 남의 소들을 세는 것과 같으므로 / 그 사람은 수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법구경의 한글 번역이다. 빠알리어 원전을 충실히 번역하면서도 빠알리어 법구경 내의 모든 단어의 풀이와 문장구조의 분석, 그리고 문장성분을 밝혀 직역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원시불교 교단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시구(詩句) 형태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인도의 법구(法敎) 스님이 그 중에서 인생에 지침이 될 만한 시구들을 모아 엮은 경전이 법구경이다. 때문에 팔만대장경의 입문서라고 불리는 <법구경>은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함축적인 형태로 전하고 있는 경전이다. 빠알리어로 담마는 ‘진리’, ‘법’, ‘가르침’을 뜻하고 빠다는 ‘말’을 뜻한다. ‘진리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경장은 남방 상좌부에서 빠알리어로 된 5부니까야로 전승되어 왔다. 이 5부니까야 중 <쿠타까 니까야>는 열다섯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마빠다>는 이 중의 하나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이 법구경은 방대한 불교 경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20여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한역, 일역 판을 이중 번역한 것들이다. 이런 기존의 이중 번역본들과는 달리 이번 책은 빠알리어 원전을 번역했다. 물론 최근 국내에 이러한 직역본이 출간되기도 했지만 빠알리어 법구경 내의 모든 단어의 풀이와 문장구조의 분석, 그리고 문장성분을 밝혀 직역의 근거를 제시한 형태의 한글번역본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빠알리어 문법공부와 경전강독을 따로 하지 않아도

## 단어·문장 분석해 직역의 근거 제시

빠알리어 문법공부까지 할 수 있어

423편 시 주제별 26장으로 묶어

고 병행하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자 취지이다. 따라서 이미 번역된 여러 이본들의 추상화되고 때때로 문맥과 의미의 번역본들보다 더 한층 원전의 의미를 독자 스스로 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좀 더 깊은 독자에게는 문법공부까지 병행할 수 있게 했다.

빠알리어 법구경은 총 423편의 시들을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나누어 묶은 경전이다. 이 423편의 각각의 시를 이 책에서는 빠알리어 원문, 한글번역, 단어해설, 그리고 각주로 구성했다. 빠알리어 원문

아래에 제시된 ‘한글번역’은 원문의 단어를 확인하기 쉽도록 대부분 직역했다. 또한 직역으로 자칫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은 의역하였는데, 각주에 이러한 사항을 밝히고 직역 또한 제시했다. 그리고 빠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한글번역에서 필요한 단어는 괄호 안에 기입하여 문맥이 닿도록 했다.

‘단어해설’에는 해당 시를 이루는 모든 단어의 문법사항을 밝혔고, 각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 중 문맥상 가장 적절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명사는 기본형이 가진 성(性)을 제시한 후에 수(數)와 격(格)을 밝혔고, 수식어 쓰인 형용사·수사·대명사·분사 등은 수식을 받는 단어에 맞게 성·수·격을 밝혔다. 성의 구분이 없는 1, 2인칭 대명사는 수와 격을 밝혔고, 성의 구분이 있는 3인칭 대명사는 성·수·격을 밝혔다. 동사는 어근과 어근의 의미를 제시한 후에 시제·법, 인칭, 수를 밝혔다.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미래수동분사는 기본형을 제시한 후에 성·수·격을 밝혔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절대분사와 부정사는 어근만 제시하였다. 접두사는 어근과 분리하여 어근 앞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운율이나 연성 때문에 생략·장음화·단음화·결합된 음절이 있는 단어는 바로 잡거나 풀어서 표기하였다.

‘각주’에는 문장성분과 본문에서 밝히지 않은 문법적 해설을 담았다. 문장성분은 술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식을 받는 단어의 성·수·격을 제시하여 수식어의 격변화 근거를 제시했고, 빠알리어 문장파악을 위해 문장 내 관계절이나 부사절을 묶어서 제시하였다.

책의 부록으로는 어근표와 접두사표가 있다. 어

근표는 본문에 나오는 어근을 어근군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눈 것이고, 사전을 참고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각 어근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또한 제시했다. 접두사표는 본문에 나오는 접두사를 정리하여 각각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다.

빠알리어 원문, 한글번역, 단어해설, 그리고 각주로 구성된 내용은 독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빠알리어 법구경을 한글로 직역한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빠알리어 원문과 한글번역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 빠알리어 문법에 관심이 있다면 빠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각 단어의 의미와 문법사항을 제시한 단어해설과 문장의 성분을 제시한 각주를 꼼꼼히 살펴보면 된다. 총 423편의 시들 가운데 일부의 시들만 내용상 연결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시들은 한 편의 독립적인 시이므로 독자들은 원하는 시를 순서에 관계없이 읽어도 무방하다.

어학에 요령있는 독자들은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책 한 권으로 빠알리어 문법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처음 빠알리어를 접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빠알리어 사전과 문법서를 꺼내고 펼쳐, 궁금한 부분을 정중하게끔 친절히 도와주는 책이다.

책은 ‘빠알리어 문법학서’라고 언급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빠알리어 문법학습에 관심을 갖게끔, 사전 및 문법서와 친해지게 만드는 빠알리어 ‘문법 학습유도서’라고 할 수 있다. 법구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도 책의 응수한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지구적 키워드 된 ‘요가’의 진단과 재구성

요가와 문화

이계룡·임승택·김재민·김미숙·최아름·박효연 지음  
해남인사 진흥출판사 펴냄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요가는 이제 전 지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가는 ‘대중화’를 향한 현재진행형인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 진행 중인 문화로서의 요가를 선도적으로도 반성적으로 진단해보자는 시도를 담고 있다. 웰빙, 수행, 여가, 다이어트 등에 한정된 요가의 담론을 문화의 측면으로 확대하고, 요가의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확인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요가가 전해진 것은 1960년대이다. 60년도 채 안 되는 역사다. 그러나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요가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누구나 아는 하나의 문화로서 보편화되었다. 요가는 이제 더 이상 인도의 요가가 아닌 인류의 요가가 되었으며 세계화되거나 전지구화 된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요가는 이제 전 지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면 역시 없지 않다. 한국의 요가를 생각해 보자면 다수의 요가 센터나 요가 단체들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 역할과 목적이 스트레스 완화나 몸매 관리로 집중되고 한정되고 있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동시대 문화 현상으로서의 요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함으로써 요가의 위상과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요가나 요가학의 정체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재확인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그 정체성의 추이를 추적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이다.

책은 ‘한국의 요가와 문화’, ‘요가와 수행’, ‘요가와 치유’, ‘요가와 생애’, ‘요가와 대중문화 그리고 여성’, ‘요가 문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6인의 필자가 각각 한 주제를 맡고 있다. 필자들은 요가학계 혹은 인도철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요가 문화를 새롭게 진단하고 전망함으로써 아시아 중심으로 대중 속에 파고든 요가가 어떻게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책은 ‘요가의 대중화’와 그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금 우리나라 요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4	깨달음	법륜	정도
5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중	공감
6	엄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샘앤파크스
7	발밑에 꽃핀 줄도 모르고	갈영 드림과	다른세상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
9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10	통도유사	조용현	일베에이코리아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이율곡이 1000 독한 <능엄경>...한 번에 쉽게

우리말 능엄경

황영을 풀어쓰는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불교의 핵심을 이론과 실천의 두 갈래로 압축하여 담고, 교리와 수행의 핵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능엄경>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쓰고 번역하고 해설했다.

<능엄경>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마다가 여인이 외운 사비가라법전주의 위력에 의해 마도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해 낸 뒤, 선정의 힘과 대백산개다라니의 공덕력을 찬양하고, 백산개다라니에 의해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하여 여래의 진실한 지견을 얻어 생사의 미계(迷界)로부터 벗어나는 수행방법 등을 설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高僧)의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전이다.

명나라 말기 우의지(吳義智) 대사는 <능엄경>을 ‘진실로 부처님 일대시교의 정수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비밀스러운 핵심’이라고 극찬했으며, 제자들이 사이에서도 <능엄경>을 한 번 본 뒤로는 세상의 잡동사니 책들을 보지 않는다’는 말까지 널리 회자되었다. 이처럼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꾸준히 <능엄경>을 애독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교리와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친 <능엄경>이지만 불교수행 전체를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능엄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책은 이렇듯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능엄경>에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책은 <능엄경>의 후반부인 오후(悟後) 수행의 난한 부분을 뒀을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줄이고, 전반부인 참마음의 성품을 밝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불교의 초심자라도 경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사마타 법문 중 마음이 있는 처소를 찾아보는 ‘칠처심심(七處徵心)’ 설법과 칠대(七代)의 실상(實相)을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해석한 것이 눈에 띈다.

일찍부터 한국불교는 승가뿐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불교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교과서로 능엄경을 권장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고려 말의 석학 정몽주는 능엄경을 읽고서 한 소식을 했다고 전해오며, 조선 초기에 새로 만든 한글로 경전을 언해할 때 가장 먼저 출판한 경전도 <능엄경>이다. 또 이율곡은 소신적(小臣積)에 모친상을 당하자, 출가하려고 입산했던 삼 년 동안 능엄경을 천 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능엄경>은 재가자들도 꾸준히 애독하면서 불교 수행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왔다. 이렇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불교공부에 있어 중요한 능엄경이 그 난해함 때문에 주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능한 한 덜어주면서, 경의 내용을 쉽고도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책은 불교 수행을 하는 이라면 꼭 한 번 숙독해야 할 책이라고 하겠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두 (한영종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종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모든 교법을 모아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해설  
신국문 | 양장 | 250페이지 | 348원 | 20,000원

**문·사·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관학들의 개요를 보았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教一治)를 주창한 규봉종일(圭峰宗一: 780-841) 선사(禪師)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어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異色)을 사용하였다. 정인(鄭仁: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秘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임승현상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根本)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알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승한 근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알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 02-2632-8739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돌고래 슈퍼 에너텍 사무실 02)471-2356 1688-5687, 011-335-6389**